

강진군, 친환경농산물 잔류농약 검사

농약 사용 의심농가 무작위 선정해 실시

강진군이 지난 12일부터 23일까지 친환경농산물의 건강하고 안전한 생산과 소비자 신뢰확보를 위해 관내에서 생산된 친환경농작물의 잔류농약 일제검사를 실시한다.

이번 친환경농작물 잔류농약검사는 2018년 48건에서 올해 83건으로 2배 가량 늘려 친환경 신규인증 농가 및 친환경 인증필지 중 농약 사용 의심농가를 무작위로 선정해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해당 농가가 입화한 가운데 강진군친환경농업인연합회, 친환경명예감시원, 읍면 담당직원에 함께 참여하여 시료 채취의 공정성을 더욱 강화하였다.

이번 잔류농약검사 결과 농약이 검출된 농가의 인증취소는 물론 각종 친환경농업 사업비 지원에서 제외되고, 향후 1년간 친환경 재인증이 불가하다. 강진군은 관내에서 생산된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공신력을 확보하기 위해 강력한 사후조치를 할 예정이다.

한편 올해 8월 기준 강진군 친환경 인증면적은 1,676ha(유기농 198ha, 무농약 1,478ha)로 지난해 8월 1,186ha보다 41% 증가하였다. 이는 지난 3월 농가별·단지별로 '2019년 친환경 인증계획서' 접수결과에 의해 산출된 수치로, 축구장 약 700여 개, 여의도 면적의 약 2배에 달하는 면적이다. 강진군은 새롭게 변경된 시책과 지원사업을 통해 친환경 인증면적을 연말까지 2,343ha(유기농 198ha, 무농약 2,150ha)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친환경 농업의 대부분을 차지했던 벼 인증에서 벗어나 유기농 중심의 인증품목 다양화를 위해 무농약 벼 인증 필지 중 과거 5년(5회)동안 친환경농업 직불금을 받은 필지는 친환경농업 직불금 지원이 중단되고, 친환경농업단지조성사업비도



1ha당 7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줄어든다.

이에 강진군에서는 유기농 종합보협지원, 유기단지 및 친환경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정부에서도 친환경농업 직불금 단계를 m당 10~20원씩 인상하는 등 친환경인증 품목다양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송승연 친환경농업과장은 "앞으로

도 소비자들이 믿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를 공급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농산물 안전성 검사 및 친환경 농업 교육이 힘쓰겠다"며 "유기농 인증과 비이외에 연근, 대파, 황칠 등의 친환경 인증면적을 확대해 소비자 신뢰 구축과 대외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강진=김영일 기자

영암군, 가족역량강화를 위한 부모교육

영암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최근 부모와 동반 자녀 50명을 대상으로 '웃는 부모 행복한 자녀'라는 주제로 부모교육 및 집단상담을 실시하였다.

가족구성원 모두의 참여를 이끌어 위해 평일 야간시간을 이용하여 진행된 부모교육은 부모-자녀 공감 대화법과 현대사회의 부모역할 이

해하기 등 가족구성원 간의 관계향상을 도모하고 건강한 가정 육성에 도움을 주고자 실시하였다.

부모교육에 참여한 한 부모는 "그동안 잘못된 양육태도를 바꿔야 할 필요성을 느꼈으며 사춘기에 접어드는 아이들과 의사소통 방법을 배울 수 있어 유익했다"고 말했다.

영암=조대호 기자

해양치유 블루존 조성사업

완도군, 연구기관 회의 개최

완도군은 지난 16일 신지 해조류스파랜드에서 2019년 균형발전위원회 공모사업에 선정된 지역발전투자협약사업 '완도 해양치유 블루존 조성사업' 연구 기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신우철 완도군수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회의는 6개 분야 학계 교수와 전문가가 참석하여 주제 발표와 향후 세부 추진방안에 대한 상호 토론으로 진행됐다.

이번 회의는 해양치유 블루존 조성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에 앞서 본 사업과 관련된 연구 분야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듣고 세부 추진방안 수립을 위

해 마련됐다. 분야별 주요 연구과제는 정밀의료 개념적용 연구, 건강기후지수 개발, 완도지역 자원조사 분석, 지역역량 강화, 해양치유 프로그램 개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정밀의료 개념적용 연구' 주제 발표자로 나선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이은일 교수는 정밀의료 시대에 맞춰 새로운 개념의 개인 맞춤형 해양기후지수 프로그램 개발로 주민 건강증진과 치유프로그램을 통한 관광객 증가로 지역경제에 활력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완도=김광수 기자

무안군, '청년 행복캠프 30days' 간담회

무안군은 19일 남악소재 청년행복캠프 쉼어하우스 2층 회의실에서 '청년행복캠프 30days'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의지청년들과 무안 '청바지' 회원들이 30일 동안 무안

에서 거주하면서 함께 했던 청년행복캠프 1기의 해단식을 대체했으며, 마케트, 도시탈출 무한도전 영상 시청, 캠프참가자 소감 발표, 청년들의 회와 자유토론, 사진촬영, 오찬을 함께하였다.

캠프 참가자 중 전주에서 온 박승민 씨는 "30일이 길면 길고 짧으면 짧은 기간이지만 무안에서 머물면서 하고자 하는 일지라도 찾게 됐다"며 남다른 소감을 전했다.

광주에서 온 김성훈 씨는 "무안의 농산물인 양파를 직접 손질하여 김치담가 관내 실버요양원에 갖다드리고, 말복날에는 정계면 도대마을 경로당

을 찾아가서 응급의약품 및 수박 전달, 각성이 나눔 공연으로 마을 어르신들과 함께 어울렸던 일들이 제일 기억에 남는다"고 말했다.

장영식 부군수는 "청년여러분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여 미래를 향해 뛰는 청년들의 뜨거운 열정을 현실에 맞는 정책으로 뒷받침 해 나겠다"고 전했다. 무안=이기성 기자

'사이클링 신안 2019' 대회 개최



섬을 만끽할 수 있는 자전거 대회가 1004섬 신안에서 열린다.

신안군은 오는 10월 25일부터 10월 27일까지 '사이클링 신안 2019' 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군이 주최하고 자전거생활이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슬로시티 증도에서 누리는 럭셔리 섬 여행'이라는 주제로 증도, 임자, 자은, 암태도 일원에서 펼쳐진다.

비경쟁 완주 대회로 해송숲길, 해안임도, 노두길 등 신안 섬만이 지닌 아름다운 풍광을 감상하며 조금은 느리고 불편하지만 깊이 있게 섬을 만끽할

수 있는 코스로 구성해 참가자의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다.

대회 1일차에는 지도 점암산착상에 집결해 임자도 50km, 2일차에는 자은-암태 90km, 3일차에는 증도 48km를 달린다.

참가 접수는 2019년 8월 26일 오전 10시부터 선착순으로 300명을 모집하며 1인당 참가비는 198,000원이다.

대회 참가자 안전을 위해 자원봉사자와 운영스텝 등을 배치하고 대회기간 동안 스포츠안전재단에 보험도 가입한다. 또한 버스킹 공연 등 다양한 볼거리도 마련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신안 1004섬 자전거 상품 운영을 통해 동호인들이 많이 유입되었다"며 "자전거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내년에는 분기별 대회 개최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남군, '2030 푸드플랜' 군민 교육 실시

해남군은 21일 군 문화예술회관 다목적실에서 윤병선 건국대 교수를 초청 '문제인 정부 푸드플랜과 해남농업발전 방안'을 주제로 군민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위기의 농업·농촌의 해결방안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부 푸드플랜 정책을 소개하고 해남군의 대응전략을 제시하는 자리로 마련된다.

서울시 공공급식위원회 위원장인 윤병선 교수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해남군 푸드플랜 전담 자문가(FD, Family Doctor)로 지정받아 해남 2030 푸드플랜 추진의 전 과정에 대해 세부계획 수립부터 실행, 평가, 교육, 전문가 네트워킹 등을 자문하고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 현장 중심의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해남군은 민선 7기 군정 중점과제로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기반조성과

지역 먹거리의 선순환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한 2030 푸드플랜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정부 100대 국정과제로 추진되고 있는 국가 및 지역단위 푸드플랜 구축사업을 통해 해남군은 지난해 지역단위 푸드플랜 선도 지자체로 선정됐다.

또한 올 2월에는 농림축산식품부의 푸드플랜 패키지사업 공모에도 선정, 오는 2023년까지 총 사업비 110억여 원을 투입해 로컬푸드 직매장과 공공급식센터 설치 등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해남군은 푸드플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군민들의 참여와 관심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에서 군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먹거리 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군민 공감대를 넓혀 나가고 있다.



진도군 드림스타트, 해양레포츠 무료체험

진도군 드림스타트에서 최근 솔비치 호텔 & 리조트 진도 일원에서 해양레포츠 무료체험 행사를 실시했다.

이 행사에는 자원봉사자와 취약계층 아동 등 100여명이 참여했으며, 해양안전교실, 래프팅, 카약 체험 등의 부대행사도 병행해 진행했다.

자원봉사자들은 "더운 날씨이었지만 아이들과 함께 너무나 소중한 추억을 간직할 수 있었으며, 내년도도 아이들과 함께 오고 싶다"라고 말했다.

드림스타트 여름학교는 방학기간 동안 보호·교육이 필요한 취약계층

아동 160명이 공예교실, 소방안전교육, 신나는 스포츠댄스 등 9개 프로그램에 신나게 참여하고 있다.

진도군 주민복지과 드림스타트 담당자는 "경제적 여건으로 체험 기회가 부족한 아동에게 해양레포츠 무료 체험을 통해 협동심과 사회성 향상을 도모하고 용기와 희망을 주는 체험을 진행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아동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도=조성용 기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옳은 정보를 구분하는 현명한 시민, 미디어 리터러시에서 시작합니다.

